

집요... 잔인... 교실의 조폭들

학교폭력 이대론 안된다

1 한계상황 이른 불량 학생

학교 폭력이 학생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피해 중학생(2년)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소년들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는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의 실태와 근절방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노예계약 맺고 심부름·금품 상납...

“선배에 버릇없다” 집단구타 사망도

학부모 김모(50)씨는 “최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광주 모 중학교 학생 사건이 마치 내일처럼 느껴진다”며 진저리를 쳤다. 지금도 자신의 아들(14·중1) 일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고 했다.

아들 A군이 학기초부터 무려 7개월 동안 같은 반 친구 2명으로부터 삼습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그가 안 것은 지난해 10월이었다. 무턱대고 ‘학교 가기 싫다’는 아들을 추궁한 끝에 파악한 학교 생활은 ‘생지옥’이었다.

같은 반 친구 2명이 쉬는 시간에 복도, 화장실 등지에서 ‘돈을 가져오라’며 집요하게 폭행하는 일은 일상이었다. 학교에서 틈날 때마다 쫓아다니며 갖은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학교 벽면에 세워놓은 샌드백 처럼 몸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혼자 가슴앓이를 했다면 내 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폭력은 여학교에서도 공공연하다. 광주시 남구 봉산동 학원가에서 만난 모 중학교 이모(14·중2)양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일진’(학내 폭력집단)으로 불리는 20여 명이 몰려 다니며 ‘빵’(금품갈취)을 뜯는다. 말은 빌려달라고 하는데,

했는 것이다. 나중에 갚지도 않는다”고 귀띔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일 광주 시내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실태를 취재한 결과 ‘일진’을 비롯한 폭력 가해학생들은 조직 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금품갈취, 폭력, 협박을 은밀하고도 집요하게 자행하고 있었다.

이모(13·중1)군은 “일진들이 담배 사오라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거의 매일 700원에서 수천원씩 매점 등지에서 뜯는다. 당해보지 않은 그 치욕과 수치를 모른다. 죽고만 싶다”고 토로했다.

유명 메이커 옷을 빌려 입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빵 셔틀(Shuttle·빵 사오기)’, ‘돈 셔틀(돈 가져오기)’, ‘가방 셔틀(가방 들어주기)’ 등은 학생들의 대표적인 은어다. ‘셔틀’은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병력 수송선에서 따온 말로, 학생들은 노예나 나를 없이 심부름을 시킨다는 의미로 쓴다.

삼지어 지난해 8월 고등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는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아들이 동급생과 강제로 ‘노예계약’을 맺고 4개월 동안 금품을 빼앗기고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같은 해 5월 고등 학생 2명이 “선배에게 공손하지 않다”며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다. 이는 경찰서에 불참해온 조직 폭력배들의 진술에서나 나오는 상투적인 폭행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학교폭력이 갈수록 조직적이고 집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 등에 시달려오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광주 모 중학교 2학년 A군의 장례식이 2일 광주시 북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A군의 친구가 영정을 들고 화장장으로 가기 위해 유족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광주 교고의 경우 가해학생은 238명인데 비해 피해 학생은 97명이었다. 수치 상으로 따져 2.5명의 학생이 1명의 피해학생을 폭행한 셈이다.

광주 청소년지원센터 이 성 팀장은 “폭력 피해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이 적지 않고, 그 수법도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극단의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영기·김대성·김경민기자 penfoot@

김정일 사후 北·中 국경 리포트

쌍 주민에게 들어본 北사회

“인민들은 김정은 누군지 잘 모릅네다”

“시장 10일 이상 폐쇄 식료품값 폭등 암시장 기승”

단동 신의주 국경=윤현석 기자

그의 얼굴엔 ‘추운 겨울나기’를 해야 할 가족들 걱정에 근심이 가득했다. 굵은 주름살, 폭 폐인 양발, 갈라진 손등, 시커먼 손톱에서 고단함을 엿볼 수 있었다.

평양에서 살고 있는 이정수(가명·51)씨. 중국 인민해방군인 아버지와 북한 주민인 어머니를 둔 그는 북한 중국교사로 지난 2000년 이후 중국 왕래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락되면서 여름과 겨울이면 단둥에 나와 돈을 벌며 북한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애도기간인 지난 23일 신의주를 거쳐 중국에 온 이씨는 단둥에서 만났다. 그는 애초 19일 나오려고 했으나 김 위원장 사망으로 17일부터 사흘간 북한 전역의 열차 운행이 정지되면서 일정이 어긋났다.

“평양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하루 2~3시간 뿐이며, 수도물도 한 달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10일 이상 시

장이 폐쇄되면서 북한 돈 6만원을 쥐야 쌀 0.5kg을 살만큼 식료품 가격이 폭등했지요.”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과 함께 일반주민 배급이 중단되자 먹을 것이 없는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한 나물, 야채 또는 의류 등을 군과 당 간부 등에게만 지급되는 쌀·감자 등 식료품과 맞바꾸기 위해 곳곳에 암시장을 만들어냈다. 북한 보위부, 안전부, 군인 등은 이 시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자릿세나 보호세 명목으로 거래료를 받는다. 김씨는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보위부는 보이지 않게, 안전부는 안전하게, 군인은 큰소리치며 가로챈다. 먹고 살아야하니 어쩔 수 없이 줘야죠. 주민들은 장사할 생각밖에 없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북한 일반주민들은 3대 세습체제의 중심인물인 ‘김정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씨는 전했다. 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몇 번째 재

임인지도, 나이가 몇 살인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 때 평양시민들이 울고불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19일 분향소를 찾아 통곡했습니다. 평양시민들 대다수가 군이나 공산당과 관계가 돼 있어 충성도가 높으니까요. 향후 김정은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TV는 하나의 채널만 보도록 고정돼 있는 등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은 알권(CD)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물론 포드노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북한 전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 사후 일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은 더 심해졌다.

“CD기가 100~200위안 정도 하는데 보통 한 통에 2~3대씩은 있습니다. 중국산으로 밀수품인데 이 알판을 보면서 주민 대부분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3면으로 계속>

/chadol@kwangju.co.kr

李대통령 “내 자신과 주변 엄격히 관리할 것”

신년 국정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지난해 잇따라 불거진 친인척과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 라디오 등을 통해 생중계된 ‘2012 신년 국정연설’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힘으로써 일부 친인척과 측근들의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빚는데 사과를 한 셈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 자신과 주변”이라고 표현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관련된 문제와 친인척, 측근 문제라고 포괄적으로 보면 된다”면서 “전체적인 일개는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 수석은 내곡동 사저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제기됐던 모

든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포함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비전을 발표하는 신년연설에 자신과 친인척, 측근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이 대통령 사촌처남의 제일저축은행 구멍 로비설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의 SLS그룹 술자리 접대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의 구속까지 ‘권력형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채널A 뉴스 동영상 제보 받습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이 가장 생생한 뉴스가 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영상, 사건·사고 사회 곳곳의 개선해야 할 점등을 촬영하여 제보해 주십시오. 촬영한 영상은 광주일보 채널A 뉴스

자료로 활용되며 채택된 영상에 대해서는 소정의 채택료를 드립니다. 보내실곳은 광주일보사 편집국 여론팀 채부 전화 062-220-0639. 이메일 job0000@hanmail.net 입니다.

광신대학교
 2012년 복고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062) 605-1112 (062) 605-1023



용꿈 꾸셨어요?

길몽 중의 길몽이라는 용꿈도 좋지만 새해엔 어떤 꿈을 꾸셔도 좋습니다. 우리 앞엔 새로운 한 해가 꿈처럼 펼쳐져 있고 다가올 하루하루가 희망의 날들이니까요. 2012년 여러분의 꿈을 삼성이 응원합니다



권기수 작, 'Nice dream'